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제50차 정기총회 '불협화음'

출석 회원 자격 논란으로 연기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한기형 목사) 제50차 정기총회가 개최를 이루지 못하고 출석 회원들의 자격 논란으로 연기됐다.

지난달 25일,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양교회(담임 김성대 목사)에서 진행된 정기총회는 개최를 위한 회원 접명에서부터 틀어졌다.

직전회장이자 공천위원회 서기 김재율 목사는 출석 회원들이 한 기관 또는 교회에서 다수 참석했음을 지적하며, 정관의 회원 자격대로 중복을 피하고 교회와 기관 대표 1인으로 출석 회원을 제한하자고 건의했다.

이어 '관례를 들어 오늘까지 20달러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을 회원으로 인정하고 총회를 진행하자'는 주장과 '정관대로 회원을 교회와 기관 대표 1인으로 하자'는 참석자들의 주장이 난무하면서, 의결권과 표결권을 갖고 있는 출석 회원들의 자격 시비로 개최하지 못한 채 연기됐다.

한기형 목사는 "정관대로 언론기관을 통해 다시 (회원자격) 공고하고 총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남가주교회 제 50차 정기총회에서 교회 총무 안신기 목사가 회원을 호명하고 있다.

총회 개최가 무산된 후, 남가주교회 공천위원회는 "현 회장이던 공천위원회의 공천을 무산시키고, 차기 회장단 선출을 주도하기 위해 C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거 동원했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남가주 어느 기관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남가주 교회는 법과 절차에 따라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공천위

원회는 회장 후보로 정완기 목사, 수석 부회장 후보로 조병국 목사를 공천했다.

총회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남가주교회 총무 안신기 목사의 사회로 남가주교회 증경회장인 류당열 목사의 대표기도 후, OC교회 직전회장인 이서 목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여호수아 1장 1-9절)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서 목사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순수한 뜻으로 모여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돈과 세습, 정치에 물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의 뜻과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일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협력해,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길 바란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배 후에는 LA시의회 10지구 시의원에 출마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와 캘리포니아주 34 지구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는 데이비드 김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동욱 기자

트럼프, '민주화 시위 지지' 홍콩인권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 홍콩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 만이다.

이날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주석과 중국, 그리고 홍콩 사람들에게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이 법안에서 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홍콩 대표들이 서로

간의 차이를 우호적으로 해결해 장기적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자율권을 인정받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분히 자율적인 상태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현재

홍콩이 인정받고 있는 특별한 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즉, 중국이 홍콩에 일정수준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홍콩의 특별 지위는 박탈된다.

또 홍콩 경찰에 최루 가스, 고무탄 같은 시위 진압 용품 수출금지, 인권 침해의 책임이 있는 홍콩인들에 대한 비자발급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 19일 미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온 법안을 수정해 만장일치

로 통과시켰다. 다음날 하원은 상원이 수정한 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홍콩인권법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의 홍콩인권법 제정은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에 서명함에 따라 중국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내이션 받습니다.(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남다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리우팅 번호 : 122043958
 여카운 번호 : 06209456
 1547 S. Gramercy place La Ca 90019
 Tel.(213)364-7289, (213)605-1983

SHARING HAPPINESS FESTIVAL
행복 나눔 축제
 2019.12.15 (주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오시는 길
 Imperial Hwy
 Beach Blvd.
 Rosecrans Ave.
 Beach
1 장소: 남가주벤틀교회 본당 1
 행복 나눔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한 해 뿌려놓은 땀과 노력을 거두는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 해 주신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 하는 귀하고 특별한 잔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축제 잔치에 귀하를 주인공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귀한 걸음 하셔서 행복나눔축제의 특별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가주벤틀교회 담임목사 오 병익
 SHARING HAPPINESS FESTIVAL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축제]
1. 행복메세지
 오병익 담임목사
 예배 오전 11시
2. 찬양과 간증이 있는 콘서트
 이경미 교수
 한세대학교 외래교수
 행복 만찬 및 선물도 준비되어있습니다.
 담임목사 오 병익
T. (562)524-2037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BETHEL CHURCH
 남가주벤틀교회

OC 교협 제29대 신임 회장으로 박상목 목사 선출

“꿀벌 같은 교협으로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루도록 힘쓰겠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 제29대 정기총회 기념촬영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 교협)는 지난달 21일, 은혜한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제29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박상목 목사를 선출했다.

신임 회장 박상목 목사는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을 인용해 “이 세상에는 거미 같은 이기적인 사람, 개미 같은

자기 것만 챙기는 개인주의적인 사람, 꿀벌 같은 꽃망울이 피도록 유익을 주는 사람 등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꿀벌과 같이 이타적이고 유익을 주는 교회협의회가 되고자 한다”며 “OC 교협이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OC 교협은 2019년 사역으로 미

주 한인의 날 감사예배, 삼일절 100주년 기념행사, OC 기독교 교협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월례회, 6.25 기념행사, 국가 기도의 날, OC 장로협의회 구국기도회, 원로 목사회 위로 모임으로 보고했으며, 회계 보고로 수입을 12,305달러 56센트로 지출은 6,128달러 43센트, 이월금은 6,177.13달러로 보고했다.

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배는 조현영 목사의 사회로 이호우 목사가 기도한 후 OC 전도연합회 이사장 윤우경 집사의 성경봉독에 이어 한기홍 목사가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우자”(행 1:12-2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400여 오렌지 카운티 지역 교회와 OC 교협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초대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목사는 또 “우리들의 교회가 개교의 중심으로 가면 교계 생태계가 모두 무너진다”며 “내가 속한 지역의 교회가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OC 교협이 잘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자”고 덧붙였다.

이날 축사한 미주 복음방송 사장 이영선 목사는 “OC 교협과 함께 기독교 가치관을 확립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하겠다”며 OC 교협에 대한 전폭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축사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한기형 목사는 “많은 교회를 전리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와 선구적 역할을 감당하는 교협이 되길 바란다”며 “시대적 사명을 가지는 평화적 통일보다는 복음으로 통일하고, 모든 임원단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교회협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동욱 기자

가을 저녁, 이태리 오페라의 향연에 몰든다



한길교회에서 펼쳐진 제26회 월드미션대학교 학생 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학생들이 이태리 오페라 하모니의 향연을 펼치며, 깊어가는 가을 저녁, 음악

예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한껏 선사했다.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

월드미션대학교 제26회 학생 음악회 개최

사) 음악과는 지난 24일,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이태리 오페라의 황금기(The Golden Century of Italian Opera)라는 주제로 제26회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 박사과정과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지휘자로 무대에 올라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인 이날 연주회는 연말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음악회로 손색이 없었다.

연주회는 오페라 종주국인 이태리에서 오페라가 가장 활발하게 꽃을 피웠던 19세기 작곡가인 조아키노 로시니, 빈첸초 벨리니, 가에타노 도니체티, 주세페 베르디, 피에트로 마스카니, 자코모 푸치니

(G.Rossini, V. Bellini, G. Donizetti, G. Verdi, P.Mascagni and G. Puccini)의 가장 대중적인 서곡과 아리아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뮤직 페스티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로 불리는 푸치니 3대 오페라 중 대표작인 라보엠, 스페인과 이태리를 배경으로 쓰인 오페라 베르디의 운명의 힘, 오페라 역사상 가장 재미있는 구두쇠 이야기 도니체티의 돈 파스칼레, 코미디 음악에서 위대한 걸작으로 손꼽히는 로시니의 세빌리아의 이발사 등 격조 높은 공연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임성진 총장은 “올해로 26회를 맞은 월드미션대학교 학생 음악회

는 그동안 종교 음악뿐 아니라 여러 장르의 음악을 다양한 주제로 연주하며 본교 학생들의 탁월한 기량을 아낌없이 표현하는 자리가 됐다”며 “좋은 연주회를 통해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학생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고, 세상과 소통하며 음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음악과 윤임상 교수는 “세계 각국의 오페라 마니아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고 있으며, 오페라 역사상 최대 전성기였던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의 세계를 유감없이 선보인 무대였다”고 소개하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음악으로 커뮤니티 봉사에 기여하는 월드미션 대학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summitus37@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1월 1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제28회 '러브 엘몬테' 추수감사절 이웃과 풍성한 사랑 나눠

나성한미교회 지역 이웃 초청 선물·음식 대접



나성한미교회는 제28회 '러브 엘몬테'에서 엘몬테 교육국에서 선정한 10명의 학생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제28회 '러브 엘몬테'에 참여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성한미교회 신용환 목사

나성한미교회(담임 신용환 목사)는 지난 23일, 지역 주민들을 초청한 가운데 제28회 '러브 엘몬테' 개최하고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나눴다.

'이웃이 되고 다리가 되어'라는 주제로 열린 러브 엘몬테는 나성한미교회가 1992년부터 시작해 매년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이웃을 교

회로 초청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히스패닉 주민들을 위해 음식과 선물 나누는 LA 동부 지역 추수감사절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아침 9시부터 교회를 찾은 히스패닉 이웃들은 교회가 마련한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돌아봤고, 교회에

서 준비한 맛있는 멕시코 전통음식인 타코를 즐기며 흥겨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를 찾은 어린아이들도 솟아탕과 페이스 페인팅, 다양한 놀이 등으로 즐거운 한 날을 보냈다.

나성한미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함께 사용하는 히스패닉 교회인 아구아비바교회 성도들과 정성껏

준비한 추수감사절 치킨을 이웃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날 교회는 엘몬테 교육국에서 선정한 10명의 학생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수여했고, 엘몬테 시는 매년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에 감사장을 전달했다.

신용환 담임목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러브 엘몬테'는 한인교회에서

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히스패닉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적 부르심을 향해 연합하는 행사"라고 소개하며 "교회 안에서 넘치는 은혜를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교회,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그리스도인의 구원, 삶으로 예배 드리는 믿음의 여정”

겨자씨 성경연구원 원장 김선웅 목사 “히브리서 복음과 신학 세미나” 개최

개혁주의 신학과 복음주의 신앙에 뿌리를 둔 겨자씨 성경연구원(Mustard Seed Bible Institute) 원장 김선웅 목사는 지난 2일, 늘푸른 선교교회(담임 안창훈 목사)에서 남가주 지역 목회자들과 선교사,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 복음과 신학 세미나를 개최했다.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김선웅 목사는 히브리서의 배경과 기록 연대, 주제와 목적, 구조 등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1장부터 13장까지 각 장과 절을 자세하게 강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구원의 은총을 비롯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과 성숙의 과정 등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히브리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뛰어난 삶’으로 구약의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삶과 탁월함을 논증한다”며 “1세기 옛 유대교 체제로 돌아가려는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차 독자들 모두는 새로운 가르침이나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



히브리서 복음과 신학 세미나 참석자 단체 사진

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종말론

적 약속을 확고하게 붙들기 위한”이라며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삶이 어

렵더라도 미래의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믿고 확신하는 새 소망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목사는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전하시지만, 구원은 우리 신앙의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거룩한 산 제사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여정”이라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참된 안식에 들어간 성도들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확신으로 주어진 복음 전파와 선교적 사명을 이어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 7월 남가주에서 태동한 겨자씨성경연구원은 교회와 복음의 본질 회복, 하나님 나라 확장을 비전으로 삼고 목회자 성경공부 통해 말씀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1,000회 이상 소그룹 성경공부를 인도한 김선웅 목사는 골든게이트 침례신학대학원과 국제개혁대학 대학원에서 M.Div.를 받고 풀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했으며 '갈라디아서-오직 하나의 복음', 소그룹 성경공부 교재 '로마서-온 세상을 향한 주 예수의 복음'을 발간했다.

김동욱 기자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상담뉴스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복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IN 뉴스 라디오 등 이민강연/상담 경력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36

“디아르바르크 김천국 선교사 순교 소식을 접하며..”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는 지난 12년간 터키와 쿠르드 민족을 섬기며 이슬람권 선교현장을 다녔다. 디아르바르크는 여러 차례 다녔으며 현지의 교회 지도자들 선교사들과도 교제하며 끊임없이 기도해 왔다. 지난 11월 초에도 터키와 이집트 선교를 가면서 터키에서 한 주간을 체류하며 선교지들을 방문했다.

남동부 지역 쿠르드의 수도라 일컫는 디아르바르크에 있는 김 선교사를 포함한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려 애썼으나 여행자들에게 쿠르드 지역을 방문하는 허락이 나지 않아 안타깝게 그 근처의 말라티야 지역까지 갔으나 끝내 쿠르드의 관문인 유프라테스 강은 건너지 못하고 돌아왔다.

작년에 방문했을 때도 디아르바르크 지역은 터키군이 시 곳곳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검문을 강화하는 모습이였다. 필자는 이슬람 선교 현장 깊숙이 들어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다. 언제 어느 때 순교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 반드시 복음이 꽃을 피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수많은 주님의 복음 전파자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순교의 피를 두려워해서는 견고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를 향하는 모든 복음 전파자들은 항상 밧는 그 땅에서 탁월 어려움과 고난을 예비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필자가 만난 쿠르드 민족은 순하고 가족적이고 평안한 민족이다. 그렇게 7천만이 넘는 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라크와 터키 시리아 등에게 영토를 뺏기고 나뉘는 아픔을 고스란히 겪은 민족이다. 그런 쿠르드 민족을 품고 섬기기 위해 우리 젊은 선교사들이 오래전에 그 땅을 향하여 들어갔다.

필자가 섬기는 선교단체에는 이미 여러 분의 순교자가 배출되었기에 충격과 당황함은 있었으나 순교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영광을 먼저 올렸다. 필자가 아는 김 선교사는 칼에 수 차례 찔림을 당하고 의식을 잃어 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을 것이다. 사도행전 스테반 집사를 생각하고, 아프카니스탄에서 순교한 선

배 이 선교사, 이집트의 김 선교사 등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41세의 청년 김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우리 곁에서 떠났지만 이제 우리 사역자들의 가슴속에 성령의 인재하심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믿는다.

12년 전 필자가 터키 땅에 처음 가서 연합 중보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이슬람 선교를 결단하고 온, 불과 한 달 후에 말라티야에서 틸만 선교사와 네자티 목사 그리고 우리 형제의 순교 소식을 접했던 때가 생각난다. 그들을 살해했던 이슬람 과격분자 청년들이 수년간 재판관을 받으면서 스스로들이 고백하며 점차 밝혀졌던 순교 현장의 모습. 수십 차례의 칼로 상해를 입히며 예수를 부인하라 했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고 증거 했던 그분들의 순교 순간의 모습들이 계속 떠올라 범인들은 끝내 죄를 인정했고 그들 중에 회심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가 생기고 부인 수산나 선교사는 그들을 용서한다 선언하고 그 후에 말라티야 교회는 교회 개척과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틸만 선교사의 고등학생이었던 아들 루카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신학을 마치고 아버지가 순교한 그 땅으로 돌아와 선교의 다음 세대를 이어 가고 있다.

이제 필자를 비롯해 그 땅, 그 민족을 더 사랑하게 될 모든 선교 사역자들은 함께 꿈을 꾸자. 세상은 어리석다 할지 모르나 그 순교의 피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였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가 그 아내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덮일 것이라는 것을, 또한 그 땅의 사역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땅이 주님께 돌아 올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순교자 김천국을 영원히 기억하자.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6) 낙관

“낙관적인 삶의 훈련!”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공황과 1차, 2차 세계대전 상처로 미국이 비관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 전 시민들이 낙담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노만 빈센트 필 박사 등이 적극적 사고를 주창하였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열풍이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그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미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큰 경제 발전을 이룹니다.

론 쇼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 어린 시절을 아주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15살 될 때 코미디언으로 무대에 섰으나 수입이 불안정해서 그만두었습니다. 론 쇼는 비극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펜을 팔았습니다. 그는 비록 어렵지만 긍정적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론 쇼의 승진과 흥분을 시키고 질투하는 사람으로 그는 퇴사하고 파일럿(Pilot)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파일럿은 비극에 비해 아주 작은 기업이었지만 론 쇼는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회사를 키웁니다. 결국 파일럿은 미국을 대표하는 필기도구 회사가 되었고 론 쇼는 파일럿사의 경영인(CEO)이 됩니다. 론 쇼는 긍정적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관적인 생각으로 낙관적으로 살아가지만 낙관적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관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인 태도가 선천적이나 고정된 성향이 아닙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습관의 산물입니다. 전문가들은 간단한 훈련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긍정적 생각을 갖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긍정의 안경을 착용하라!
주어진 여건과 상황을 긍정적으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감사했던 일 세 가지를 정리하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여하간 무심코 지나치거나 잊히기 쉬운 기본 좋은 일을 한번 더 생각함으로써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실수에서 유익을 찾아라!

모든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수가 가져오는 피해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모든 실수가 모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실수는 실수 자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실수에서 배우는 지혜를 찾아보고, 실수에서 유익을 찾을 때 실수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자 의식을 극복하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을 피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종종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피해자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Don't victimize yourself!)

여섯째, 자신을 스스로 축복하라!

긍정적인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도 예외는 아닙니다. 생각날 때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즐겁다.”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등의 칭찬을 해주면 그 칭찬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경은 두 가지 색깔, 즉 긍정의 색깔과 부정의 색깔입니다. 긍정의 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주변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면에 부정의 안경을 착용한 사람은 주어진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안경의 색깔 따라 보이는 세상이 다릅니다.

둘째, 범사의 유익을 바라라!

어떤 사람은 내리는 비를 불평하고 하루를 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비가 주는 유익을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에서 유익한 것들을 생각하면 유익이 보이고 기회가 보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는 기회가 올 때마다 어려움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보세요. 유익을 보세요!

셋째, 입으로 감사를 고백하라!

일상에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고 고백하라는 충고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고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건 마무리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고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다소 고전적이지만,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사장 : 존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행복 감수성 훈련!

Bliss Sensibility Training

교회, 기업, 소그룹(행복 세미나)
1강좌·3강좌·3일 집회 가능
행복감수성교실(1일 1시간, 7월~10일)

행복 세미나 강의내용

- 1. 행복해야 할 이유
- 2. 행복의 역사
- 3. 행복의 개념 정리
- 4. 행복 Know How
- 5. 행복을 나누세요
- 6. 행복을 위한 활동(실습)

행복 감수성 훈련원 T.(323)578-7933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강사소개
강태광 대표 (목사, 시인, 수필가)
한국군 군종목사 20년 (미8군 KATUSA목사, 군종학 교관)
이민목회 20년(다인종 교회)
당신의 행복을 여는 99가지 열쇠 저자
시집 불청객 외 3권
설교집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외 다수
행복칼럼 연재(기독교일보 2년)
문학칼럼 연재(침례신문, 남미복음신문)



“하나님 나라 확장,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로 나아가자”

기쁜우리교회 목양 사역자 감사잔치 열려



기쁜우리교회 2019 목양 사역자 감사잔치

기쁜우리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지난 24일, 목양 사역자를 위한 감사잔치를 열고 ‘선교와 전도’에 초점을 맞춘 교회, ‘서로에게 기적이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기쁜우리교회는 이날 한 해 동안 목장 예배를 비롯해 교회 성장과 교인들의 성숙, 전도와 선교에 협력을 위해 힘쓴 10개 목양, 53개 목장을 격려했다.

김경진 목사는 “가족 같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교회 리더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올 한 해 인도네시아, 몽골, 터키 등 무슬림권과 북한동포와 탈북자를 위한 활동 펼친 기쁜우리교회는 내년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로 나아가자”고 독려했다.

이날 감사잔치에 참여한 교인들은 간증과 찬양, 공연 등으로 강한 유대감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가 함께 웃고, 목양의 깊은 사랑을 나눴다.

한편 기쁜우리교회는 이날 교육부 김다운 양과 사랑부 심재보 군 등 학생 2명에게 입교와 세례를 거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인규 기자

소망장로교회 창립 12주년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절대적 소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소재한 소망장로교회가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았다.

소망장로교회(담임 성요셉 목사)는 지난 1일, 교회 창립 12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 전파에 힘을 다짐했다.

성요셉 목사는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12년 전에 시작된 소망장로교회가 아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주셨다”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 한 영혼이 희생과 섬김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또 “엘에이 지역의 소외된 자녀들을 돌보는 기쁨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멕시코 선교를 통해 복을 주셨다”며 “12살을 넘긴 소망장로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실 때 언제라도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예배는 김재형 장로의 인도로 민병한 장로의 대표 기도 후, 정찬군 목사(일심교회)가 “그래도 교회가 절대적 희망입니다”(마 16:13-19)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비난과 조소가 넘치는 시대지만, 그래도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

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베드로의 처럼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한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면서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천국의 열쇠인 복음을 주셨듯, 소망장로교회가 목회자와 하나 되어 이 복음을 소유하고 증거 하는 사명을 다하라”고 권면했다.

이어서 축사한 겨자씨 성경연구원의 대표인 김선웅 목사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았기에 항상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면서 “12주년을 맞이한 소망장로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통

해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정찬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인규 기자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행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재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성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12월 동족선교 16325 68th Ave. W. #31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musa@jdoorbrothers.org | www.jdoorbrothers.org
 등본 방법: Pay to: G.B.M. W(에코)로 기업에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연말세금공제영수증 보드립니다.

앞서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를 미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를 살게 사드립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u stylist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문에 한함. *헤어 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옛적 길 곧 선한 길(2)

예레미야 6:9-21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예레미야 6:9-21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갭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11 그러므로 여호와와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13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납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17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19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은이라 20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여접이노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21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처며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들과 잘못된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고 말함으로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3-4에 보면 “때가 이르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했는데 이같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본문의 경고의 말씀은 반드시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63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였고 이사야 1:19-20에서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했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선지자들은 “걱정말라, 귀담아 들을 일이 아니다. 이같은 태평성대에 저주스러운 말로 악담을 하고 있다”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할 대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와 보는 시각과 목적이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의 눈은 그들의 죄악을 감시하며 그들의 심령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몸부림쳤으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대접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즐겁게 하는 말에 힘썼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생명의 말씀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도 들려주시지 않고, 서둘러 지옥으로 몰아넣기 위한 달콤한 유혹의 말만 들려오는 입장에 있다면 이미 하나님이 버리신 인생일 것입니다. 16절에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 중에 믿음의 본을 남긴 자들이 어떤 생활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생계가 보장받았는지 그 길을 살펴보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 길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길을 본받아 그리로 행함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을 벗어나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8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조상들이 지켜 살아온 믿음의 본을 남긴 옛적,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과 일치하는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대 걸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하심을 바라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목적해야 합니다. 예전엔 내 생각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진 존재로 인도하심을 바라며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39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며 이 말씀을 상고하며 사는 인생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합니다. 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들으라” 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십니다.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 여접이노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심은 6,000리나 되는 먼 곳인 시바에서 유향을 사오고 그보다 더 먼 인도(원방)에서 향품을 사가지고 제단에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하는 목적인 중심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것이 문제라서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예배마다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습관처럼 드리는 헌금이라면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라면 목숨이라도 주님 원하시는 자리에 기꺼이 바치고 싶어 할 것이며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정성을 모아 섬기자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같이 살지 못해서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처며 이웃과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는 믿어지는 확실한 믿음이 성령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자는 목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을 나타낸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어렵게 구한 물품들을 하나님 제단에 바쳤다 하더라도 심령으로 진리 안에서 동행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했습니다. 평소의 생활이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행동 신앙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쓸 때 여러분의 길은 평탄하고 형통하며, 안전한 구원의 보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66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교회 설명회 안내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전 주민 의료보험 의무가입과 미가입 벌금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교의료상조회 프로그램 혜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일시: 2019년 12월 15일(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토렌스제일장로교회 (담임: 고창현 목사) EM 예배실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 예약: 이사라 213.318.0020 hyenulee@christianmutual.org

☛ 교회 및 단체, 소그룹 모임에서 예약하시면 계산 곳으로 찾아갑니다. 원하는 방문 일시를 예약하세요!

캘리포니아 지역 CMM 설명회 안내
 비싼 의료비 부담으로 고민 중인 한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2회(화, 금) LA와 Anaheim에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개인이나 단체는 사전 예약 바랍니다.
213-318-0020 (이사라)
 hyenulee@christianmutual.org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899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1. 이력서
- 2. 목사 안수 증명서
-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 4. 자기 소개서
- 5. 최근 설교 CD
- 6. 추천서

■ 제출 방법

-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남가주 목회자들 그레이스 유 시의원 후보 당선 기원



이날 예배를 마친 목회자들은 그레이스 유 후보에게 헌금을 전달하며 선거 운동을 격려했다.

LA시의회 10 지구 시의원에 출마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 당선 기원 예배가 지난 3일, 그레이스 유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증경 회장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남가주 교협 증경회장들은 그레이스 유 후보의 당선을 기도하면서 9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3월 3일 예비 선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인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관심과 투표를 당부했다.

예배는 김관진 목사의 사회로 제 40대 남가주 교협 회장 지용덕 목사(미주 양곡교회)가 "성공의 지도를 그려라"(여호수아 18: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지용덕 목사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승리를 신뢰했다"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듯이 그레이스 유 후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도전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용덕 목사는 또 "그레이스 유 후보가 미 주류사회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미국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29대 남가주 교협 회장 류당열

목사의 소개에 이어 인사한 그레이스 유 후보는 "남가주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깊은 감사드립니다"며 "남은 90일 동안 10 지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성원과 한인들의 유권자들의 등록 및 투표를 부탁드립니다"고 요청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주류 사회에 반영할 것을 약속하며 LA 지역 노숙자 문제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 LA 지역 인프라 시설 보수 및 확충,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에게 안전한 거주환경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동욱 기자

LA시 종교 담담 보좌역, 한인 교회 지도자들과 협력 희망



좌부터 카캠 회장 샘신 목사, LA 시장 종교 담담 보좌역 데이비드 프라이스 목사, 카캠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

데이비드 프라이스 목사, 카캠 임원단과 관계 증진 방안 모색

지난 3일, LA 시장 종교 담담 보좌역 데이비드 프라이스(David Price) 목사가 한인 타운에서 샘신 목사(51대 남가주 한인 목사 회장, KACEM 회장)와 강태광 목사(KACEM 사무총장, World Share USA 대표)를 만났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서 데이비드 프라이스 목사는 "앞으로 LA 지역 한인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와의 관계를 증진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기대감 나타냈다.

그는 특히 "LA시 정부와 한인 교계 사회가 함께 일함으로 더 나은 LA 지역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한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샘신 목사는 잠재력이 있는 한인 교회에 LA시나 주정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속적인 만남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카캠은 오는 1월 하순 경 프라이스 목사와 다시 한번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에 결성된 KACEM (Korean American Church Leaders' Council for Multi Ethnic Ministry; 카캠)은 미국 주류사회와 타인종과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카캠(KACEM)은 장 단기 계획들을 수립해 타인종 교회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미국 주류사회와 연합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한인 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을 찾고 있다.

카캠(KACEM)에 대한 문의는 회장 샘신 목사(213-215-6029) 또는 사무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에게 할 수 있다.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추수감사절 축제 개최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추수감사절 축제

올해로 개교 21주년을 맞은 새언약초중고등학교(NCA)가 올해도 특별한 추수감사절 축제를 가졌다.

지난 21일, 학교 강당에서 재학생과 학부모, 친지들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페스티벌은 감사예배, 핸드벨 콰이어, 학생 합창단, 유치원부터 3학년생들의 연극 및 율동, 추수감사

절 점심 등으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학생과 교사, 친지들을 위해 전통 추수감사절 음식을 마련했고, 아이들에게 한 해 동안 잘 자라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음식 서빙을 하며 훈훈한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음식을 즐기는 동안 학생 합창단, 찬양팀의 특송 등 다양

한 순서가 진행됐으며, 식사 후에는 남학생 농구팀과 선배/교사팀 농구 시합을 갖기도 했다.

한편 특히 매년 캔 음식을 모아 불우이웃에게 전달하는 학교는 올해도 어김없이 4000여 개의 캔 음식을 모아 홈리스 사역처에 전달했다. 이인규 기자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Z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도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Y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 (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T:(310)749-2522

창대교회, 터키 도시락과 따뜻한 담요로 추수감사절 사랑 나눠



추수감사절 창대교회 사랑 나눔

창대교회(이준준 목사)는 지난 23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샌버나디노 새콤 레이크 파크(Seccombe Lake park)에서 노숙자들에게 150명 분의 터키 도시락과 따뜻한 담요를 전했다.

이준준 목사는 “많은 분들의 사랑과 나눔으로 추운 겨울을 따뜻한 마음으로 녹일 수 있었다”며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 필요한 이들에게 더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21년째 노숙자들을 섬기는 창대교회 이준준 목사와 성도들은 의료선교, 경로잔치, 사랑의 쌀 나누기, 사랑의 점프 등 행사를 진행하며 매년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등 절기마다 음식과 선물을 나누며 노숙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남가주 밀알 사랑의 교실 봉사자들 대통령 봉사상 받아



밀알 관계자들과 대통령 봉사상 수상 학생들

남가주 밀알선교단이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운영되고 있는 사랑의교실 프로그램에 봉사자로 참여해 온 고등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통령 봉사상을 수여했다.

지난 23일 ‘씨니사이드교회(조성백 목사)’에서 열린 2019년 남가주 밀알 대통령 봉사상 시상식에서는 금상 69명, 은상 25명, 동상 20명 및 새런 쿼크-실바가주 하원의원상 등 총 123명이 자원봉사상을 받았다.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수업료 및 기타 부

대비용 없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OC, LA, 이스트 LA, 어바인, 토런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교실이, 산타페 스프링에 위치한 밀알 사무실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 교실이 매주 진행하고 있다.

2000년 8월 남가주 OC 지역에서 처음 시작된 남가주 밀알선교단은 발달장애인들의 재활과 교육에 힘쓰고 있다. 미주 밀알선교단 산하 15개 지단, 2개 지소에서 사랑교실을 통해 수많은 발달장애 참가자들과 교사, 봉사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 11월 정기 월례회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 11월 월례회 기념촬영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회장 정지윤 목사)는 지난 23일 로텍스 호텔에서 11월 정기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최선호 목사의 대표와 김숙영 교수의 특송에 이어 최하량 목사가 최목사는 창세기 8장 6절-12절을 본문으로 ‘비둘기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2부 순서에서는 류민호, 홍유리, 김상분, 소속현, 패티 양, 김사덕, 이산하, 이정은, 조진숙 씨의 시낭송과 연발 선물 교환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 2020년 2월 1일 오전 10시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새해 첫 예배를 계획하고 있다.

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고육부 예배 오후 7: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요일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 아침예배 오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새시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한양사역 각 예배 15분 전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확임하며, 이만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승천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then 코너)
T. (213)386-2233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수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i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세예배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토)
3부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오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동쪽예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차성구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대예배 1부 오전 8:00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중보기도(목) 오후 7: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620-7240 Email: sehil2021@gmail.com
(87와 Westmoreland 코너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2:3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양기성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청년부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영양부/유초등 오전 10:50 새벽예배 오전 6: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EM 영아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아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성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후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박은종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0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리셋예배(분당) (소세베) 오전 11:0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빛,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GC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라티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부/유아/어동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김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신. 초.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년부/유년부 오전 11: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청년부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함께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사랑에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

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산타모니카 민회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

김경별 담임목사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박효우 담임목사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곽부환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과 진리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아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으로 새움 받아 함께 갈라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유영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조용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말씀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목)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화)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7:30分.

치노밸리 아름다운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저녁성)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 매일 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6:00
본성성: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녁성: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오전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EM 오전 11:15 (교육관)
(Blended Service)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F. (818) 882-9777 www.churchmannan.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 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 (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혁 담임목사
MP 채플 333 S. Garfield Ave. Monterey Park, CA 91754
5일 1부 예배 오전 8:00 8일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후 1:30
금요성령집회 화 7:30 수요일예배 화 7:45
새벽기도회 월 5:30 / 토 오전 8:00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새벽기도회 월 5:30 / 토 오전 8:00
(T. 818) 363-5887 Fax: (323) 837-5940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이날 그레이스 유 후보가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I am with you)"라고 말하자, 봉사자들은 "나도 그레이스 유 후보와 함께 할 것(I am with Yoo)"이라고 외치며 성원을 보냈다.

"I am with you!, I am with Yoo!" (Linda McShan)은 "LA는 변화가 필요하고 우리는 정치적이고 현신적인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레이스 유는 우리 커뮤니티를 사랑하고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지지를 보냈다.

유 후보는 "오는 3월 3일 예선을 통과해 결선에 진출하기 위해 10 지구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과 적극적인 투표를 부탁드린다"며 10 지구 한인 교회와 성도들의 성원을 요청했다.

LA 10 지구에 포함된 우편번호는 90004, 90005, 90006, 90008, 90010, 90016, 90018, 90019, 90020, 90034, 90035, 90036이다.

이날 참석한 자원봉사자 린다 맥산 김동욱 기자

소망 소사이어티 2019 소망 연례 후원의 밤 개최



오늘 12월 8일(주일) 오후 5시 30분, 세리토스 퍼포밍 아트센터

여한 이들의 '삶의 고백'의 순서도 마련된다.

유분자 이사장은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는 모든 분들의 목표이며 그 목표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이 소망 소사이어티의 사명"이라며 많은 이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이번 소망 연례 후원의 밤에 참여나 참석을 원할 경우, 소망 소사이어티(562-977-4580, somang@somangsociety.org)로 연락하면 된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를 비전으로 '웰빙', '웰 에이징', '웰다잉'을 미션으로 한인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추수감사 오픈하우스



특별순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 GMU 필그림 코러스팀

그레이스미션대학교(Grace Mission University, 최규남 총장 이하 GMU)는 지난 26일, 신입생 위한 추수감사 오픈하우스를 플러튼 본교에서 개최했다.

최규남 총장의 환영 메시지로 시작된 이날 오픈하우스는 터키 디너와 행운번호 추첨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됐으며, 제임스 구 교수가 학력인가, 학위과정, 학교 소개, 정부 학자금 보조, 장학금 소개, 통신 수업 등을 안내했다. 이날 참석한 모든 신입생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한편 GMU는 미 연방정부 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로 학사학위 과정은 신학학과와 기독교 상담학 학사과정이 있고, 석사과정은 기독교 교육학석사, 선교학석사, 기독교 상담학 석사과정과 목회학 석사과정이 있다. 박사과정은 선교학 박사과정과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과정이 있다.

학교 및 입학 관련 문의는 714-525-0088이며, admissions@gm.edu 이메일과 학교 홈페이지 gm.edu로 문의할 수 있다.

뉴욕목사회 제48회기 정기총회 개최... 신임회장 이준성 목사



뉴욕목사회 제48회기 정기총회가 25일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에서 개최됐다.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가 25일 오전 10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제48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이준성 목사(뉴욕양무리교회)를 선출했다.

단독후보로 회장에 입후보한 이준성 목사는 이날 전체 90표 중 찬성 65표, 반대 21표 무효 4표를 얻었다. 이준성 목사는 당선소감을 통해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면서 "목사회에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회장은 김진화 목사(뉴욕미래비전교회)가 투표로 당선됐다. 부회장 선거는 1차 투표 결과 전체 86표 중 김진화 목사가 절반인 43표, 이재덕 목사 40표, 무효 3표가 나왔다. 1차 투표에서는 과반의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기 때문에 2차 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직전에 이재덕 목사가 사퇴를 표명하면서 김진화 목사가 회원들의 박수로 부회장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진화 목사는 "회장을 잘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인으로 구성되는 감사는 투표를 통해 정재현 목사, 류승례 목사, 한석진 목사를 선출했다.

목사회는 또 이날 신임회원으로 김정길 목사, 이현숙 목사, 김준현 목사 등 3인에 대한 가입을 허락했다.

회계보고에 따르면 뉴욕목사회 47회기 총수입은 33,168.32불이었고 총지출 29,246.36불로 총잔액은 3,921.96불이다.

뉴욕=김대원 기자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손정훈 담임목사 위임예배 드려져



취임사를 전하는 손정훈 목사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손정훈 담임목사 위임예배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손정훈 담임목사 위임예배가 24일(주일) 오후 5시 개최됐다.

제7대 담임목사로 위임하게 된 손정훈 목사는 현 서울 은누리교회(서빙고) 부목사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샌디에고 은누리비전교회 담임목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홍콩중앙교회 담임목사로 목회한 바 있다.

손 목사는 연세대학교 교육학 학사와 장로회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Talbot School of Theology Th. M을 마치고 동대학 D. Min 3년차 과정에 있다.

이날 예배에서 손정훈 목사는 "교회가 고 정인수 목사님 소천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고 있다. 그 모든 일들이 교회가 믿음 위에 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하였음을 믿는다. 그 오랜 노력이 추수감사주일에 열매로 맺게 하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손정훈 목사는 "고 정인수 목사님이나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이다. 성도들의 기도도 격려가 필요하다.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투명하게 전하고, 사심없이 교회를 섬기며, 참된 목사,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가르치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사당회장으로 14개월을 섬긴 문정선 목사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 훌륭한 목회자는 교인들이 만드는 것이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부흥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으니, 그리스도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계속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교인들을 위한 권면의 말을 전했다.

연합장로교회 3대 담임목사로 시무하다 미국장로교 총회 한인목회실에서 한인교회를 섬긴 김선배 목사는 "연합장로교회는 한국에 복음을 전한 미국장로교에 빛난 자들이 42년 전 세운 역사적인 교회이다. 미국장로교 내에서도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다.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귀한 사역을 시작하니 기쁘고 감사하다.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음이 함께 하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아틀란타한인교회 김세환 목사는 "우리는 감리교인, 장로교인이기 전에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한인교회나 연합장로교회 모두 큰 교회로 이 교회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분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를 증거하자.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틀란타=김앤더슨 기자

사우스 베이, 토렌스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오후 8:40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이석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이동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1:00 오전 5:40 (토)

성화장로교회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걷는 믿음-사랑-강 공동체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310) 515-1191 www.sunghwachurch.org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림회 금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학교 오전 11:30
KYM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진으로 오방언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가디나 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말씀예배 오후 1:30
이름따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모임과 갈라디(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족예배 매월 4째주 주일 오후 5:30(토)
대학생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생명의 열매를 살리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사제 모든 것을 가는 복음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학교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성경특목팀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 College 오전 11:00

이명익 담임목사
UBM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청년부 오전 9:30, 11:30
한아침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유/초등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M)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령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찬양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설모임 : 매달 둘째 및 넷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988-3321, (562)8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후 8: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상사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 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본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749-7770 www.saemool.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중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문화 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8: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국어) 장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ME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김인철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기쁨의 공동체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일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인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운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일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하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7: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2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하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반교회 세계선교를 머무릿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전 10: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예배 오후 7:30

최성철 담임목사

좋은나무교회
말씀을 배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1531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www.goodtreefellowship.com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영어)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1:45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좋은마을교회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T. (714)646-9259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688
T. (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한인 터키 선교사 피살 후
기독교 박해 두려움 확산



터키 울루스 광장의 영웅 아타튀르크 동상. ©한국오픈도어

지난달 19일 한국인 김진욱 선교사가 터키 남동부에서 괴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터키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3일 보도했다.

국제기독교연대(ICC)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터키 디야르바키르의 한 거리에서 괴한의 칼에 찔려 병원에 실려갔으나 곧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부터 터키에 거주하며 사역을 해 온 그는 올해 초 가족들과 함께 이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그에게는 아내와 한 명의 자녀,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가 있었다.

김 선교사의 죽음은 2007년 터키 말라타의 기독교 출판사인 지르베 퍼블리싱 하우스(Zirve Publishing House)에서 벌어진 사건 이후 첫 순교로 기록됐다. 당시 이곳에서 성경을 출판해오던 2명의 터키 기독교인과 독일인이 의자에 손발이 묶이고 목이 잘린 채로 발견돼 큰 충격을 주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지난 3년 동안 터키 내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적대감은 계속 증가해왔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터키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왔다”고 전했다.

박해감시단체인 오픈도어즈(Open Gate)는 “터키의 선교사들에 대한 조사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앤드류 브런스 선교사는 테러 연관, 간첩, 그리고 적대 행위로 알려진 기독교 전파 혐의 등으로 터키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2년이 넘게 수감돼 있다가 2018년 석방됐다.

약 23년 동안 터키에서 사역해 온 그는 지난 6월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몇 달 동안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수십 명의 외국인 교회 지도자들과 가족들이 터키에서 추방됐다”고 밝혔다.

10월에는 터키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캐나다계 미국인인 선교사가 체포 및 수감됐다. 19년 동안 터키에서 사역해 온 그는 15일 내로 출국하라는 명령과 함께 풀려났다.

ICC의 클레어 에반스(Claire Evans)는 “김 선교사의 죽음과 터키 내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의 증거는 그동안 터키가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지 보여준다. 올해만 해도 우리는 기독교를 상대로 한 적대감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접했다”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길 기도하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강해진 기자

‘文 대통령 소개’ 도올 김용옥,
기독교 도서도 펴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주말 휴가 후 SNS를 통해 도올 김용옥의 책 3권을 직접 추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용옥의 신간이라며 《슬픈 쥐의 운회》, 《스무살 반야심경에 미치다》, 《동일, 청춘을 말하다》 등 3권을 소개했다.



도올 김용옥 교수.

도올 김용옥 교수는 이 신간 3권 외에도 ‘마가복음을 희랍어 원전에 기초해 타복음서나 바울서신을 전제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읽어 내려간 결과물’이라는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를 최근 펴냈다.

한신대 석좌교수인 그는 동양학을 전공했으나, ‘50년간 고전학을 연마했다’며 동양학의 입장에서 ‘기독교성서의 이해’, ‘도올의 로마서 강해’, ‘요한복음 강해’, ‘도올의 로마복음 한글역주’, ‘큐복음서’ 등을 썼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저술들과 기독교에 대한 접근법은 기독교 정통 신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의 일은 리포르만다 주최로 지난 10월 8일에 열린 ‘도올 김용옥과 사이비 기독교’라는 주제의 학술회였다.

당시 학술회에서 변증학을 전공한 박병룡 목사(청주서문교회)는 “기독교와 관련된 그의 주장과 저서들은 안타깝게도, 정당한 학문적 근거 없이 펼쳐는 비성경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박 목사는 “《금강경 강해》에서는 독실한 불자라고 했지만, 도올은 《요한복음 강해》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정통 기독교 신자로서 예수를 믿는다’고 했다”며 “그러나 도올은 기독교의 유일신을 부정하는 의미에서 무신론자이고, 유기체적 우주의 기원이나 우주, 그리고 인간 자체를 신으로 보는 범신론자”라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신앙에 관한 도올의 주장을 다음 5가지로 정리하기도 했다. ①초월자로서 기독교의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닌, 비인격체다 ③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④예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다 ⑤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이어 이영진 교수(호서대)는 “도올 김용옥은 KBS 1TV에서 ‘예수는 사생아일 가능성이 있다(2000년)’고까지 발언했지만, 그 7년 후 한국조직원학회에서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다”며 “그가 기독교를 잘 모른다는 이유였는데, 정말 그러한가? 그가 동양철학자로서 기독교에 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상술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 교수는 “도올의 구약 폐지론, 구약의 하나님 유패론, 성경 해체론 등 모든 주장은 정통 기독교에서 자신의 자의적 기독교를 탈취하기 위한 모종의 프로그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 중심축에는 바로 텍스트의 이단성이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자의적 기독교’가 수십 년간 공중파 TV를 타며 전통에 도전하는데도 한국교회는 어찌하여 한 차례도 그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판명하지 않았는가”고 했다.

최덕성 박사는 “(도올이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계는 신종 기독교다. 하나님의 존재와 천지창조를 인정하지만, 신(神)이 창조 후 자연 질서에 간섭하지 않으며 세상은 오직 자연법에 따라 움직인다고 하나님에 대한 ‘불가지론(不可知論)’을 표방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도올 김용옥 교수는 올해 초 KBS1 토크쇼 ‘도올아인 오방간다’에서 기독교인이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괴뢰(puppet)”라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발언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터키 난민들 돕던 故 김진욱 선교사 순교 애도”



김진욱 선교사 천국환송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목선협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 추모 성명 발표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공동대표 김찬호·조희완·전태·김주연 목사, 이하 목선협)에서 터키에서 고향의 공격으로 사망한 故 김진욱 선교사의 순교를 애도하는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목선협 측은 “김진욱 선교사(41세)는 전쟁의 참상을 피해 국경을 넘은 시리아 난민들의 고통을 전해 듣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터키 동부 국경지역 우르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수개월 전 우르파를 떠나 디야르바크르로 사역지를 옮겨 그

곳의 난민들을 돕고 복음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지난 19일 김진욱 선교사는 출산을 앞둔 아내 선교사에게 ‘전도하러 다녀오겠다’며 나간 것이 마지막 길이 됐다. 고향의 공격을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안타깝게도 다음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며, 21일 터키 현지에서 수백 명의 기독교 관계자들의 애도 속에 장례식이 거행됐다”고 전했다.

목선협 측은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 순교의 피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났고 열매를 맺었다”며 “김진욱 선교사가 흘린 순교의 피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 측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①거룩한 순교의 피가 떨어진 터키 지역과 그가 돌보던 쿠르드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지속할 것이다.

②터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수사가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라.

③언론은 거룩한 순교와 난민을 섬기는 사역, 故 김진욱 선교사를 추모하는 이들과 행위를 비방하거나 폄하하지 않기를 바란다.

④한국목회자선교협의회는 故 김진욱 선교사의 순교의 신앙을 따라, 신앙 생활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이대웅 기자

“충신대, 동성애 입장 밝히고 교수 명예 보호해야”



충신대학교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이 최근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성희롱 발언 논란’과 관련, 충신대학교에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대책위원회 구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위위에 동성애 반대를 성희롱으로 주장하고 있는 학생 3명과 함께 평소 동성애를 강하게 옹호하고 있는 서울대 인권센터 출신의 박찬성 변호사를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충신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충신대가 진정으로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면, 동성애 비판을 성희롱으로 몰고 가려는 주장에 대하여 동성애 반대를 위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동성애를 비판한 교수의 명예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대책위의 구성에는 반드시 이재서 총장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보기에, 과연 이재서 총장은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성희롱과 동성애 비판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겉으로는 동성애 반대를 말하지만 실상은 동성애 반대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부 세력과 같은 마음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율러 “동성애 비판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충신대 내부의 주장이 생겼을 때에, 이러한 사태를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려는 태도 자체는 장자 교단이라고 자칭하는 충신대가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충신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감하게 동성애 비판 강의를 하는 교수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충신대 내부의 주장이 생겼을 때에, 이러한 사태를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려는 태도 자체는 장자 교단이라고 자칭하는 충신대가 결코 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보면서 통탄하는 마음으로, 충신대학교는 아래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래는 성명 일부.

1. 충신대학교는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2. 충신대학교 교수들이 동성애 반대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3. 동성애 반대 강의와 일반적인 성희롱 문제를 분리하고, 성희롱이라 주장하는 학생들과 성평등을 주장하는 변호사를 대책위에서 제외하고 건학이념에 부합한 인사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4. 동성애를 비판하며 충신대학교의 정체성을 지키기에 앞장선 교수의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김진영 기자

검찰 송치된 ‘베이비박스’ 목사 측 “부정 사용은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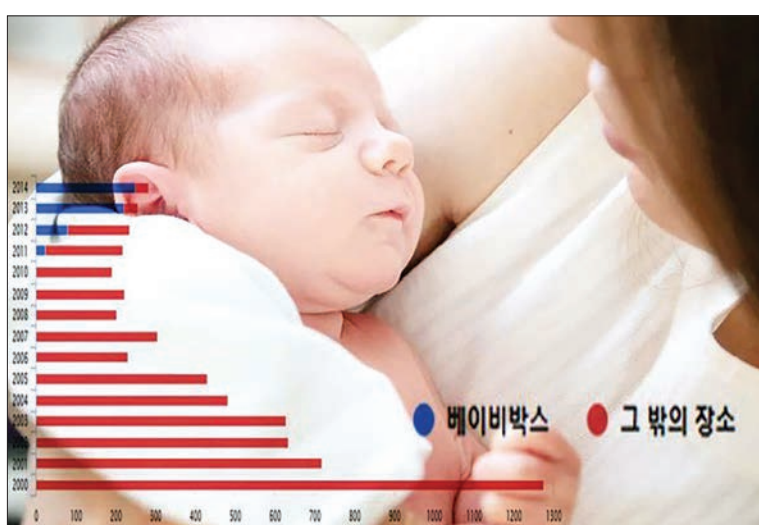
서울 금천경찰서가 지난달 30일이 모(65) 목사를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천구청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목사가 소득신고 의무를 어긴 채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2억 900만원을 받았다며 이 목사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2억여 원에 대한 환수 통보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목사 교회의 관계자는 “부정 사용에 대한 혐의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목사 부부는 현재 친자식 외에 9명의 장애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관계자는 “목사님께서는 이번 문제로 혹여나 미혼모들이 찾아오는데 주저할까봐 국가에서 잘못했다고 하니 빨리 인정하고 갚을 게 있으면 갚겠다고 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지난 7월 ‘사죄의 글’에서 “국민 여러분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죄송하다. 법과 질서에 무지몽매하여 하나하나 챙기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



국내 영유아기건수 및 베이비박스 보호 수. ©pixabay,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

게 되었다”며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저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아이들과 아직도 도움을 바라고 있을 미혼모들에게 혹여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 심히 걱정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힘들게 일하시는 금천구청 공무원 분들과 금천경찰서 분들에게 무거운 짐을 드리게 되어 죄송하고 직접 오셔서 걱정해 주셨던 공무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한편 이 목사 부부는 국내에 첫 ‘베이비 박스’를 설치, 이를 통해 10여년간 유기 영아 1,600여 명을 구했다. 아울러 미혼모 상담 및 무료 출산 지원, 거주시설 지원, 베이비케어 키트(양육용품 박스) 지원 등을 하고 있다. 특별히 2015년부터는 미혼모와 아이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세이프헤븐’처럼 ‘베이비룸’을 만들었다.

김신의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페셜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펙 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비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림
- 옆구리 통증(염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불복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토,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신경성,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햇빛레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감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불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위 아드모아)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진리의길) 앎,(학문의 길) 삶,(십자가의 길)

개강일자: 12월19일

본교 지원시 특전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NYTS)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화,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화,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 2020년 겨울학기 입학/편입생 모집

프린스턴 바이블 유니버시티(PRINCETON BIBLE UNIVERSITY) 에서 입학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받아 그의 사역자로 헌신하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개강일자 : 2020년 1월 6일

등록상담전화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 TEL: 310-678-6836

나는 누구인가

저는 익숙하지 않은 습관이지만, 한국이나 선교지에서 처음 만나는 분들과 인사할 때 저는 종종 명함을 건네 받습니다. 명함을 주는 분이 어디서 근무하는지, 직위는 무엇인지, 학력은 어떠한지를 한번에 알 수 있는 명함은 시시콜콜 자신을 소개하지 않아도 되니 다소 편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나는 누구인가'를 통성명하는 시간에 명함 한 장이 그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것이 나를 충분히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나는 명함에 소개되어 있는 직위나 근무처, 학력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의 자기 소개 장면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팔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빌3:5)라며, 유대인 측면에서 본다면 성골 출신이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나온 베냐민 지역 출신이며 최고의 엘리트 바리새인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소개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화려한 자기 이력을 한마디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로 '해'(害, loss)라고 일축합니다.(빌3:7)

비록 예루살렘의 사도들보다 늦게 입문했지만,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 15:10)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생활하는 저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자기의 자랑을 늘어 놓는 것이 득보다 해가 된다는 것이며, 남과 비교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한 것도 내가 한 업적이라 여기면 득보다는 해가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혹시 섬김의 열매로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 섬기는 역할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말할 때, 나의 이력으로 열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 했음을 고백하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의 가능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칭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하며, 비판을 받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결국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결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함을 다시 만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000'라고 꼭 적어서 만들면 좋겠습니다.

고국에서 친구들을 보는 감회

귀중한 의료 휴가를 받고 한국에 왔습니다. 건강상의 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검진과 암 검사 및 용종 제거 시술을 받으려고 예약을 잡아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기 위하여 약간의 개인 정비(maintenance)를 위한 시간을 잡습니다.

수요일에는 시간을 내어 시골 산에 들렀습니다. 참나무와 낙엽송은 옷을 벗어온 산을 두껍게 덮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좀 이른 점심 식사를 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걸어서 소풍을 갔던 금광 저수지 아래의 "할머니 두부집"에 들렀습니다. 동창 임명식 사장이 고무장갑을 끼고 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하시네!" 나의 말에 임 사장은 "안 쫓겨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대답합니다.

식당 앞에는 동창들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다 알만한 친구들이 등산하며 찍은 사진입니다. 의동이, 윤규 등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봅니다. 아직도 친구들의 이름이 잊혀 지지 않았습니. 가난하던 시절 칩뿌리 캐러 산으로 다니던 일, 냇가에서 목욕하고 개구리 잡으러 다니던 일, 눈싸움하고 썰매 탄다고 이곳, 저곳을 다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기억속의 임 사장은 매우 가난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 파시고, 그는 어머니의 이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성공시켰습니다.

먹고 사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어진 후 동창회가 열리면, 그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합니다. 심지어는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친구들의 한을 풀기 위하여 총주담으로 60회 동창회 수학여행을 갈 때, 버스를 대절해주는 고마운 기부를 하였습니다.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안성초등학교가 100회 졸업생을 배출한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이제 세월이 만만치 않게 흘렀습니다. 임 사장은 아주 젊어보이지는 않지만, 삶의 활력이 넘칩니다. 돌아오는 길에 포탄 구덩이에서 놀던 아이들이 아직도 사회의 일꾼이 되어 마지막까지 달리고 있음을 생각했습니다.

고국에 도착한 날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한, 신앙의 친구들도 마지막 질주를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전도한 장성일 교장은 이제 얼마 전 명퇴를 하여, 90대의 아버님을 열심히 봉양합니다. "나를 전도하여 주어서 고마움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다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막역한 교회 친구 정현철 집사는 건설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상체를 단련하는 일로 몸의 균형을 가지게 되었다고 즐거워합니다. 그는 저에게 하이킹 훈련을 시켜준 장본인입니다.

한 해를 마치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떤 세대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시점을 예의 주시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목표를 앞에 둔 경주자 바울이 생각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딤후 4:7-8).

연휴병

한국 사람이라면, 추석연휴, 설날연휴 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휴병이라고 부릅니다.

명절 연휴가 되면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눌 수 있어서 즐겁습니다. 그러나 막상 명절 연휴가 시작되면 생각만큼 즐겁지 않습니다. 귀향길, 차량 정체로 인해 생기는 피로, 과식으로 인한 후유증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연휴가 끝나면, 연휴에 젖어 있던 몸과 마음이 다시 일을 하는 긴장상태로 복귀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20여년이 넘는 이민생활 동안 한 번도 "설날이다" 혹은 "추석이다"라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설날과 추석이 공휴일이 아닌, 미국의 상황도 그렇고, 사역의 특성상 여름휴가 외에는 연휴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수감사절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웬지, 추석 같은 느낌, 설날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미국 사람 다 되었나 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 아침에 책을 읽는데, 웬지 조금 풀어져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서 느슨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 속의 글이 대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 내 마음과 생각은 며칠 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며 감사를 나누는 날로 정해진 추수감사절이라는 사회적 약속과 규정만으로도 마음과 생각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들뜬 마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위의 사람과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사람을 무엇을 담는 그릇과 같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2020년부터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치 세뇌가 된 것처럼, 부정적이고 우울해집니다.

반대로 어떤 혁신적인 일들에 관한 소식을 들으면 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레고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스럽고 경멸스런 일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거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사람들은 그 일을 당연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좌지우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좋은 세상 온다고 희희낙낙 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이 망해간다고 우울해 하는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기뻐하거나, 감사해 하기도 하고, 반대로 슬퍼하며 탄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입니다.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성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면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품!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면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를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 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하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코셔미네랄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나트륨 Na : Cl	(정제염 - 포소금, 맛소금)
칼륨 K : Cl	나트륨 (Na)
칼슘 Ca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그네슘 Mg : Cl	

중금속 간수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이음헵프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CBD BAJA HAMCHO Inc. ☎ (213)386-3896, (213)605-2772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올가년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동,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츠빙글리의 성경관과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들(5)

김재성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1544년에 이르러 성만찬 신학의 정립을 놓고서 루터파와 츠빙글리파 사이에 새로운 논쟁이 격화되었다.

영특하고 예리한 신학지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1540년대 후반에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혁교회 진영이 전체적으로 존립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1549년 5월 칼빈과 파렐은 취리히를 직접 방문하였다. 불링거와 직접 대면하여 신학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는데, 두 사람은 만난 지 불과 두 시간 이내에 서로 합의를 이뤘다. 칼빈의 제안은 취리히 시의회에서 논의된 후에 공식적인 지지를 얻었고, 정치적인 동지애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곧바로 "협화신조" 20개 항목이 발표되었는데, 칼빈은 불링거의 용어들과 교육 방식을 받아들였기에 손쉽게 합의에 도달했다.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와 의 교통은 성령을 통해서 실현되어지는데, 믿음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는 점이 핵심내용이다. 스위스 개혁진영은 견고한 통일성의 기반을 확립하게 되었다.

취리히와 제네바에서는 점차 교회의 독립권이 허용되어졌으나, 베른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모든 교회업무가 사실상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좌우되었으며 특히 교회가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권징을 허용하지 않았다. 베른에서는 츠빙글리에게서 영향을 받은 요한네스 할러가 루터파에게 가까웠던 스트라스부르 교회 쪽으로 기울었다.

1558년 12월, 로잔의 목회자들은 더 큰 도시인 베른 시당국의 결정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베른 시당국의 반응은 즉각적인 보복이었다. 북종하겠다는 목회자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1559년 2월, 로잔의 모든 개혁교회 목회자들을 직위 해제시켰다. 아카데미에서 원장을 맡아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확산시키던 베르 비레 역시 물러났다. 제네바와 베른은 똑같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내적으로는 교회의 지위가 너무나 편이하게 달랐다.

취리히와 제네바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만찬 신학의 정립을 위해서 루터파에 대응방안을 모색했지만, 그 외에 각론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개혁신앙을 발전시켜 나갔다. 제네바에서는 교회 권징과 예정론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고, 취리히에서는 불링거가 앞장서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들과 동유럽에 관련된 사항들을 많이



종교개혁가 츠빙글리의 기념비 ©김재성 박사

다뤘고, 칼빈은 프랑스어 사용지역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

맺는 말

로마 가톨릭 신부였던 츠빙글리가 모든 오류들을 간파하고 결정적으로 낡은 전통에서 돌아서서 종교개혁자가 된 계기는 성경을 통해서였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츠빙글리는 사탄을 정복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권능을 확신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능력은 때로는 역사 현장 속에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구원의 은총이 담겨져 있었

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스위스 종교개혁을 일으킨 츠빙글리의 성경적 확신에 감동을 받는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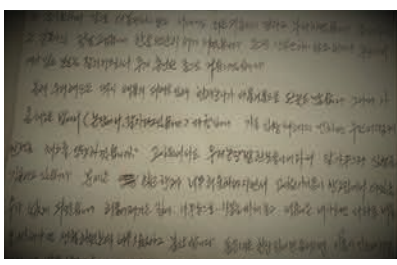
성경을 통해서 믿을만한 합당한 근거를 찾은 후에, 그는 지속적으로 생활의 개혁과 윤리적인 갱신으로 구체화 되어야만 할 것을 역설하였다. 츠빙글리의 복음적인 발견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특징 지워졌다. 부당함과 불공정에 맞서서 역사 속에서 참된 의로움을 시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에 순종하라는 것이 츠빙글리의 메시지에 담긴 특징이다. 이점에 있어서 그의 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각성과 연계되어져 있었다.

츠빙글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였고, 그의 스위스 시민을 향한 애국심은 사회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감각을 새롭게 하였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은 스위스 지역 종교개혁자들의 연대를 묶어내는 요소가 되었고, 후대 종교개혁자들, 특히 제네바의 칼빈과 그를 따르는 주변의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취리히 지역의 종교개혁이 모든 기독교 세계의 개혁운동으로 확산되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영향을 남기게 되었다.

로마 가톨릭의 군대에 의해서 비참하게 츠빙글리가 처형당한 곳에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끝)

지하숙소복원과 복녕동족(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주세요!

지난 여름 태풍으로 붕괴된 숙소 (10명의 고아들 거주) 복원과 동족들과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감사절과 성탄절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힘이 될 것이고 복음통일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태풍피해를 가시기 위한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 "1919유관순" 교회/단체관람(안내)



3.1운동 100주년과 유관순 서거100주년을 기념하고, 초대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을 감동은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커다란 울림과 사명을 준다. 주중 혹은 주말과 주일에 교회단체관람가능, 관람료는 관람후 자발적인 헌금 혹은 \$300 관람비로 합니다. 내년 3월 유관순 서거 10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 역사인물로 등재가 됩니다 (관람신청은 아래연락처).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숨한 압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섭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_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20/권당+우송료\$5을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우송해드립니다)

기드온동족선교회는 매달 복녕의 동족어린이들에게 영양빵 3,000~5,000개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달 참여하여 도울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아둔 동진들이 있다면 성탄절 전에 보내주세요. (참여방법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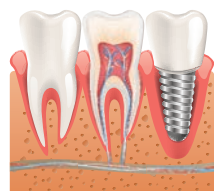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치과 의사 이동희
이동희 원장

세 남매를 명문대에 합격시킨 부모의
실·전·교·육·노·하·우

공부하는 아빠 공부시키는 엄마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단순히 유전자를 물려주고 성장시키는 생물학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양육은 부모의 영혼과 자녀의 영혼이 함께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이자 축복입니다. 자녀의 인격을 향기롭게 만들기 위해 부모가 맘을 흘리며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자녀의 기쁨과 아픔을 보면서 부모가 누우치고 더 성숙해지는 생애방향적인 사건입니다. 자녀를 가르치며 자기 스스로가 치유되고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경험, 이러한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기쁨은 안달복달 임시 정보만 캐묻고 다니며 자식의 성과만 중용하는 부모가 절대 느낄 수 없는 소중한 체험입니다.



저자 김영숙

한 목회자의 아내, 세 아이의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저자는 35년째 양육교회를 섬기고 있는 저용수 목사의 사모이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의심치 않는 김영숙 사모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학업 퍼포먼스를 높이는 커리큘럼을 개발 운영하는 (아이즈맘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 연구소를 통해 매우 젊은 엄마들과 자신의 양육 노하우를 공유하며, 제대로 된 방향 설정과 부모의 훈육 자세가 천만 원짜리 과외 공부보다 훨씬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영숙 지음
192면 | 10,000원

저용수 목사의 저서

설교
모든 문제의 해답 324면 / 7,000원
꿈꾸는 것 같았다 408면 / 12,000원
우리가 말한대로 408면 / 14,000원

아고보서 강해
지혜를 얻는 열쇠 508면 / 15,000원

요한계시록 강해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상) 414면 / 10,000원
새 하늘과 새 땅(하) 484면 / 12,000원

빌립보서 강해
그리스도인의 주소 572면 / 12,000원

사사기 강해
오늘의 드보라 312면 / 9,000원
평화롭게 사는 길 400면 / 12,000원
최후의 승리 336면 / 10,000원

마가복음 강해
성도의 행복 416면 / 11,000원
오늘과 그날 470면 / 12,000원

주님의 약속 459면 / 12,000원
위대한 임무 397면 / 11,000원

요나서 강해
요나와 나 208면 / 9,000원

아트설교연구원 인문학 서평 감정, 하나님 주신 선물

미숙한 사람 감정 따라 살지만... 성숙한 사람은 감정 선택할 수 있다



감정은 패턴이다 랜디 타란 | 강이수 역 유노북스 | 402쪽

나와 당신,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주 맞닥뜨리는 10가지 감정들에 대한 가장 상세한 보고서

자전거 타는 기술을 익히면 자전거를 탈 수 있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기술을 익히면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감정을 다루는 기술을 익히면 감정을 다룰 수 있다.

그리고 감정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경지에 오르면, 비로소 자신의 감정과 단짝이 된 기분이 든다.

감정 처리 힘들어... 감정대리인 찾는 사람들 긍정적 감정 다루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부정적 감정은 상황 달라... 문제 생기기 쉬워

<트렌드코리아 2019>라는 책을 보면, 소비트렌드 가운데 '감정대리인'이 등장한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정대리인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 화났다"는 감정을 이모티콘으로 표현하고, 연애나 여행을 액자형 관찰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신 경험한다. 대신 욕해주는 페이지에 들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으로 감정을 '외주' 준다. 본능적이고 삶에 필수적인 감정 표현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간다. 감정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 긍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행복, 인정, 사랑 같은 감정들은 언제나 환영할 수 있다. 이런 감정들은 기분 좋게 하는 감정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들과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상황이 다르다. 빙산처럼 거대한 두려움, 불타오르는 분노, 캄캄한 동굴 같은 절망이 몰려 올 때 힘이 든다. 이 감정들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현대인들에게, 이 책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책의 저자인 랜디 타란은 전 세계에 행복의 기술을 전파하는 비영리단체 '행복 프로젝트(Project Happiness)'의 설립자이자 CEO이다.

저자는 10대 딸이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알았지만, 어떤 해결책도 소용이 없었다. 전문가에게도 의견을 구해봤지만, 오늘날 우울증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가장 심각한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뿐이었다.

이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 일을 겪은 후, 저자는 자신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공유하고자 마음먹는다.

저자는 감정에도 '단계'가 있다고 말한다. 감정은 끌어오른 다음에는 곧 서서히 누그러지는 단계가 찾아

오게 된다.

이 때 지나간 상황을 되돌아보면 서, 감정이 폭발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신체적 변화를 느꼈는지, 감정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땠는지 등을 알아차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런 반성의 기회를 잘 이용하면 감정도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감정의 패턴 인식하고 주도권 잡으면 변화해 감정의 그늘 수용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감정, '우리를 돕는 명확한 내면의 소리' 정의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감정의 패턴을 인식하고 감정의 주도권을 잡으면 변화가 생긴다. 내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나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감정의 그늘까지 모두 수용하게 되었고, 전보다 감정의 패턴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일단 감정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예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내 감정과 단짝이 된 기분이다. 더 이상 예전처럼 감정과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적 역량을 발휘하기도 훨씬 쉽고 자기중심적인 한계에서 벗어나 나기도 쉽다. 전에 느껴 본 적이 없는 해방감과 즐거운 기분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주도해 나간다는 느낌이 확실히 커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의 모습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10가지 감정을 선별해서 심도 있게 전개해 나간다.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 죄책감, 욕망, 자신감, 행복, 관용, 사랑'.

저자는 먼저 감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런 감정이 찾아오는 원인을 밝힌다.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이 감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감정은 우리를 돕는 명확한 내면의 소리다. 부정적인 감정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참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다양한 감정을 다루고 헤쳐 나가며 교훈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감정을 선택할 수 있고 세상은 우리가 선택하는 대로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은 덧없이 생겨났다 사라진다. 감정에 집착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쏟지 않는 한 감정은 곧 사라진다. 애정 어린대화, 맛있는 식사, 아름다운 자연 경관처럼 좋은 것들을 음미하고 있을 때, 감정은 우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비록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감정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 준다. 그리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나면 우리 앞에 새로운 선택을 제시해 준다.

당신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되살리고, 그 감정들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라."

정서적 존재로 창조... 감정, 하나님 주신 '선물' 사람들에게겐 숨겨도...하나님 앞에 감정 표현을 기도할 때 모든 감정 토설해 놓으면 받아주신다

노만 라이트는 이런 말을 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서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정서 생활은 왜곡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정서 자체를 멸시하고 내쫓고 묵살하고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 감정을 우리가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

감정은 우리 인생 여정의 함께

하는 친구이자 길잡이다. 감정에는 에너지가 있다. 따라서 감정의 패턴을 알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감정을 때로 표현해야 할 때도 있고 숨겨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특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토설해 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정직한 분이였다. 예수님은 감정을 억압하지 않으셨다. 화가 날 땐 화도 내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욕도 하셨다. 셋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하나님께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하셨다.

미숙한 사람은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만, 성숙한 사람은 감정을 선택할 수 있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파도타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가 잘 조절하지 못해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인정하고 선택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이재영 목사 대구 아름다운교회 담임 출처:아트설교연구원



내면의 감정에 대한 영화 <인사이드 아웃>. 기쁨은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잘 될 거야'라고 외치며 무한긍정을 발휘하고 슬픔은 연신 '난 이제 틀렸어'라고 중얼거리며 바닥에 무기력하게 엎드려 있다.

2020년 축복가득 말씀카드 다시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2020 뉴버전의 디자인은 끈이있는 말씀카드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디자인은 예전과 동일한 끈이 없는 인덱스형으로 제작이 가능하시며 뉴버전의 디자인은 끈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EVENT 20% OFF 선 주문 할인 혜택 11월 27일 까지 주문고객!! 150개 \$175 300개 \$275 500개 \$425 \$140 \$220 \$340 전화 및 온라인 주문 환영

주님미디어에서는 그 외에도

말씀타올, 머그컵 및 텀블러, 설교CD, 임직패, 티셔츠 등 각종 기념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323.265.0244

다양한 샘플이 웹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나눔의 실천을 통해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월드쉐어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이티 소망 학교



한국전 참전 용사 후손 돕기(수리남)



홈 리스 사역 지원



양로 병원 지원활동

World Share USA
3020 Wilshire Blvd, #160, LA, CA90010

▪ 대표: 강태광 목사 T.(323)578-7933